

시대 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Ⅱ)
- 중세 남성 속옷을 중심으로 -

金 珠 愛

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A Study on the Underclothes by the Changes of Ages
- Focused on Men's Underclothes in Medieval -

Ju-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in-Ju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I. 서 론

II. 사회·문화적 배경

III. 중세 속옷의 개요

IV. 중세 속옷의 품목별 특징과 변천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Medieval men's underclothes. Underclothing includes all such articles, worn by either sex, as were completely or mainly concealed from the spectator by the external costume. Throughout the Middle Ages, the underclothing of both sexes possessed characteristic inherited from earlier times. Its function was purely utilitarian. It was not used to express class distinction and only very indirectly to enhance sex attraction. The idea of underclothes was associated with the idea of the body's sinfulness. Underclothes could also symbolize the discipline of humility. To appear clad only in underclothes was a voluntary form of selfabasement often practised by pilgrims. The notion that underclothes might express the spirit of the changing times, in sympathy with the outer clothing, did not enter the medieval mind.

The length of the shirt was less than that of the modern garment, especially after the middle of the fourteenth century. The sleeves were somewhat full, without cuffs, and cut straigh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twelfth century, when braies become definitely an undergarment. In the fourteenth century braies became shorter and shorter and the shirt could no longer be tucked in but hung outside over the thighs. After 1340 the costume on the surface somewhat resembling modern 'tights', began to reveal display the shape of the male leg as a form of sex attraction. By the close of the Middle Ages, braies had become less like loincloths, and more

like modern bathing trunks. The peasant and laborer did not attempt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of fashion but, continued, as a rule, to wear the long braies of their forefathers. The higher ranks how this garment reflected the changes of the mode of outer costumes.

I. 서론

속옷은 피부에 접하여 있고 겉옷에 의하여 완전히 혹은 거의 가리워지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속옷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옷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없으며, 완벽한 의상이란 겉옷과 속옷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속옷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옷에 관한 연구는 겉옷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현대에 들어 겉옷 못지 않게 속옷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복식 산업계에서도 속옷 산업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재질에 따른 속옷의 기능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속옷의 겉옷화라는 유행현상으로 속옷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史的 고찰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보¹⁾에서는 속옷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고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즉 고대의 경우 남녀 의복에서 속옷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한때만으로 겉옷과 속옷의 역할을 함께 하거나 또는 두메가 겹칠 때 안의 것이 속옷 역할을 하였고, 또한 고대 속옷에 관한 사료가 적은 관계로 남녀 속옷을 함께 다루었다.

그러나 중세에는 남녀 의복의 성차가 뚜렷해지고 겉옷과 속옷의 구분이 비교적 확연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중세 여성의 속옷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으나²⁻⁴⁾, 남성 속옷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성 의복에 관한 연구로는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세 남성 속옷의 종류, 구성법 및 기능적 변천을 파악하여 남성 의복에 관한 완전한 이해와 고찰을 돕고자 한다.

II. 사회·문화적 배경

중세는 로마제국이 395년 동서로 분리된 후 서로마제국이 망한 476년부터 동로마제국이 망한 1453년경으로 보통 15세기 중엽까지를 말한다. 동로마제국은 330년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로마체제가 동유럽으로 이전했으며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변성에 힘입어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따라서 일찍부터 발달한 비잔틴 복식이 서유럽의 중세 복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모체가 되었으며 서유럽은 새로운 사회질서로 봉건제도가 이루어졌다. 복식은 이러한 사회조직을 배경으로 하여 게르만 복식과 로마 복식의 융합된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진보되었으며, 로마 말기 이래 급속히 보급된 그리스도교는 봉건제도에 적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것이 종교 위주였던 중세는 전 유럽이 로마 카톨릭이란 공통된 신앙으로 통일되어 의상에 있어서도 각 나라나 민족마다 독자적이라기보다 보편적인 형태를 띠었으며, 또한 고대 의복형태를 벗어나 몸의 곡선에 맞도록 재단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현대 의복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은 성당뿐만 아니라 조각, 벽화, 그리고 공예품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의 건축장식은 대부분 인물을 소재로 한 것이어서 당시 복식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십자군 원정이 진행되는 동안 군복이 유행되며 신체 보호를 위해 심을 넣은 조끼가 애용되었다. 십자군 원정에 의해 서유럽의 학문과 예술, 산업 등은 13~14세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중세 후기에 백년전쟁⁵⁾으로 인해 국가주의가 발달하고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국가의 성립

1)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4호, pp. 12-31.

2)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 논문, 1985, pp. 13-15.

3)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子大學校 석사 논문, 1985, pp. 23-24.

4)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86, pp. 4-6.

이 가능하였다.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새로이 등장한 중산계급의 신중상인은 귀족들의 생활양식과 의상을 모방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해내어 1425년 이후 복식이 극단적으로 화려해졌다. 중세도시의 발달과 장원제도의 해체로 인한 유희노동력이 직물제조공장에 흡수되어 직물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14세기의 의복에서는 성차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15세기경에는 고딕 건축의 침투적 외관이 복식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III. 중세 속옷의 개요

중세 속옷은 계층구별과 성적 매력을 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실용적 기능만을 가졌으나 기술과 질적인 면에서 다양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속옷은 실용적이긴 하나 역시 성가시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보온을 위해서 따뜻한 속옷을 착용하는 것 대신에 걸옷을 더 껴입었다. 이 당시에 속옷은 걸옷의 거친 표면으로부터 피부보호와, 신진대사의 분비물로 부터 걸옷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졌다. 속옷 소재로 상류층은 린넨(linen)을 사용한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피부와 밀착되게 거친 방모(紡毛)를 사용하였다.

14세기 중엽 소위 현대의 패션개념과 더불어 계층구별과 성적 매력이 강력히 나타났으나 이것은 걸옷에만 적용되었고 속옷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중세의 종교에서는 육체란 불길하고⁵⁾ 죄가 있으며, 속옷은 신체와 밀착되어 부끄러운 것으로 지칭되었으며⁶⁾ 사회적 계층이나 성적 매력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죄의식과 관련되어 고해성사 때 헤어셔트(hair-shirt)를 착용하였다. 또한 겸손함을 상징하여 순례자는 자기겸손의 자발적인 형태로써 맨살의 다리와 셔츠만 걸친 상태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 처벌의 경우에는 속옷 착용이 강요되어 간통죄를 지은 여성은 교회에서 슈미즈

(chemise) 차림으로 고해성사를 하였으며, Lollards⁸⁾는 셔츠와 브레(braies)만 입고 참회하였다. 1070년에 교황 그레고리(Gregory) 7세로부터 사면을 요구하는 헨리(Henry) 6세는 맨다리와 방모로 된 셔츠만 착용한 상태로 카놋사의 성에서 사흘동안 추위 속에 남겨졌다. 속옷이 걸옷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시대의 정신을 나타낸다는 개념이 중세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1세기까지는 남녀 모두 예외없이 잠옷을 착용하였으나⁹⁾, 그 후의 중세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은 잠자리에서 잠옷을 착용하지 않았고 해산이나 기념적인 방문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였다. 예를 들면 Lancelot du Lac의 the fourteen-century romance에서도 잠자리에서 발가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초서(Chaucer)¹⁰⁾의 'The Marchantes Tale'에서 남성은 침대에서 셔츠(그림 1)와 나이트 캡(nightcap)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조인빌르(Joinville)는 하절에 걸렸을 때 튜너를 입은 채로 잠들었다"고 언급되고 있다¹¹⁾.



<그림 1> Shirt.
(Men in Black, p. 49.)

5) 1337~1453년, 카페왕조 후 영국왕실과 프랑스왕실간의 왕위 계승으로 인한 싸움.

6) 深井兎子 譯, セシル・サンローラン,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1981, p. 48.

7)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 4.

8) 14~15세기의 John Wycliff파의 교도.

9)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 27.

10) 14세기 영국시인, 쉐터베리의 순교자, 사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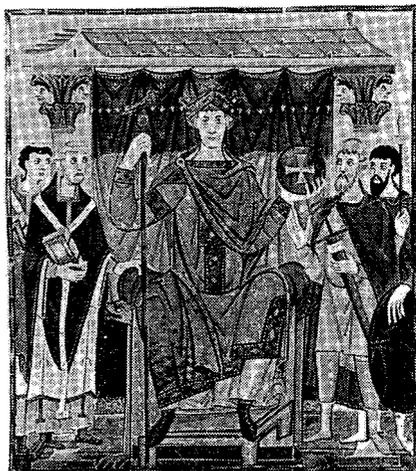
IV. 중세 속옷의 품목별 특징과 변천

1. 셔트(Shirt)

중세의 여러 가지 속옷 중에서 남성의 셔트와 여성의 슈미즈는 튜닉에서 유래되었다¹²⁾. 비잔틴 제국시기에 추울 때는 튜닉 밑에 소매가 좁고 스커트길이가 긴 언더튜닉을 입거나 튜닉 위에 소매가 넓고 소매길이나 스커트길이가 짧은 수퍼튜닉을 입는 등 이중으로 입어¹³⁾ 속에 입은 것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유스타니아누스 황제는 속옷으로써 세그멘타(segmentae)가 있는 긴 소매로 된 무릎길이의 흰 튜닉을 착용하였다¹⁴⁾. 중세 초기에 남성은 착용 용도나 계층에 따라 길이가 길거나 짧은 언더튜닉을 착용하였는데, 이것의 소매는 좁고 길었다(그림 2). 아인하르트(Eginhard) 기록을 통하여, 8, 9세기때 사르마뉴(Charlemagne) 군주도 튜닉 속에 린넨셔트를 착용하며¹⁵⁾ 아래에는 브레를 착용한 아주 간단한 복장인 것을 알 수 있다¹⁶⁾.

1156년에서 1261년에 걸친 플란타제넷(Plantagenet)시기¹⁷⁾에 남성 속옷은 여전히 셔트와 허리에서 드로우스트링(draw-string)에 의해 유지되는 브레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더튜닉으로 구성되었다¹⁸⁾. 중세 중기에 발리오 속에 튜닉을 입었을 때 목둘레와 소매부리에 자수장식을 한 것이 밖으로 보였다. 11세기 솔로몬 왕도 2개의 튜닉을 착용하여 언더튜닉이 속옷의 역할을 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속옷으로 세앵즈가 상용되었고, 13세기부터는 이 속옷을 슈미즈라고 하였다¹⁹⁾. 이 세앵즈는 로마네스크시대에 얇은 모로 만든 언더튜닉의 다른 명칭이며 몸에 끼며 발목 길이에 폭과 소매통이 좁고(그림 3) —자로 트여진

등근 목선 앞에 목선 가장자리와 소매 끝을 금, 은사로 수놓거나 장식밴드를 두르는 등 비교적



<그림 2> Under tunic, Otto III, 10c.
(*Costume and Fashion*, p. 53.)



<그림 3> Chainse, 12c.
(*西洋服装史*, p. 71.)

11)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23.

12) Ewing, Elizabeth,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981, p. 18.

13) 정용숙, *서양복식문화*, 교문사, 1997, p. 110.

14) 青木英夫, *西洋男子服 流行史*, 源流社, 1994, p. 47.

15)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 144.

16) Laver, James, *Costume*, Hawthorn, 1963, p. 25.

17) 영국 중세의 플란타제넷 왕가, c 1154-1399.

18) Yarwood, Doreen,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 53.

19) 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2.

하러하였으며 목둘레를 끈으로 여몄고 재료는 우수한 린넨이나 견·모직물을 사용하였다.

중세 후기의 슈미즈는 섬세한 린넨으로 만든 긴 소매가 달린 튜닉형의 속옷으로 넓적다리 길이인 것이 보통이며 목둘레에 끈을 꿰어 오그린 형태가 있고 목둘레와 소매부리에 레이스를 달거나 색사로 자수장식을 한 것이 있었다.

14세기 영국에서는 슈미즈를 셔트라고 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언급되나, 여성용에는 스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셔트는 남성에 한하여 주로 길이가 짧은 경우에 적용하며 중세 전체를 통해 영국에서는 셔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셔트라는 용어는 절단(cut-off)을 의미하는 스칸디나비아 말의 어근인 skar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허리부분에 이르는 의상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짧은 의상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용어는 skyrte이며, 덴마크의 용어는 skiorte로써 둘다 skar에서 유래되었다²⁰⁾. 셔트는 신체의 상부에 착용되며 소매를 가진 의상의 일종으로 보통 코트, 자켓이나 다른 의상 속에 착용되었다²¹⁾.

중세를 통하여 남성 속옷은 셔트와 브레를 계속 유지하였으며²²⁾, 이것들은 자연스런 색상의 린넨을 이용하였다. 셔트는 엉덩이길이였고, 등근 목과 입기 쉽도록 앞에 슬릿이 있었으며 그 위에 1개나 그 이상의 튜닉을 착용하였다²³⁾. 남녀가 착용한 속옷 중에서 셔트는 최고로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셔트 그 자체의 고유한 명칭과 함께 기본적인 디자인 및 남성미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용되어온 것 중의 하나이며 150년 전만해도 이것은 항상 피부에 바로 착용되었다.

1327년에서 1399년에 걸친 플란타네겟시기에 언더튜닉은 허리와 간결성을 강조한 꼬다르디와 유사하며, 1327년에 이것은 꼬다르디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으나 후에 겉옷의 소매가 팔꿈치길이가 되자 언더튜닉 소매는 팔꿈치부터 손의 첫마디까지 보여졌다. 이 시기에는 손을 부분적으로 덮는 긴 소매가 특징이었으며 소매가 완전하게

덮히도록 팔의 긴 부분에 단추가 채워졌다. 중세의 셔트길이는 지금보다 짧았는데 특히 14세기 중엽 이후 더욱 짧아졌으며, 그 시대의 사본을 통해서 보면 셔트의 형태는 다양하였다(그림 4, 5, 7, 9). 셔트는 폭이 위에서 아래로 증가되어 접혀졌고 앞과 뒤부분은 어깨를 가로지르는 일직선 솔기로 이어져 목주위로 모여졌다. 셔트는 양쪽 옆이 막히거나(그림 5, 6) 트였으며, 이 트임은



<그림 4> Shirt without vents, 14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4.)



<그림 5> Shirt without vents, 15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4.)

20) E. Linton, George, *The Modern Textile and Apparel Dictionary*, Textile book Service, 1973, p. 510.

21) Internet, <http://www.eb.com:180/>, Britannica.

22) Yarwood, Doreen, 앞의 책, 1954, p. 55.

23) Yarwood, Doreen, 위의 책, p. 76.

24) Internet, <http://www.eb.com:180/>, Britannica.

16세기부터 남성 셔트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었다. 트임이 있는 경우는 앞과 뒤의 패널(panel)이 같은 길이였고(그림 7, 8) 때로는 트임이 옆술기 외에 더 앞쪽에 위치하여 앞쪽 패널이 뒤쪽보다 좁게 나타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중앙에 슬릿(slit, 세로로 길게 찢어진 틈)이 있었다. 소매는 커프스 없이 다소 풍성하고 일직선이나 기모노형태의 소매도 사용되었다. 상류층의 노르



<그림 6> Shirt with vents, c1070.
(Underwear, p. 8.)



<그림 7> Shirt with vents, 15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4.)



<그림 8> Shirt with eyelet holes.
(Underwear, p. 11.)

만(Norman)셔트는 목과 손목 주위에 자수가 놓아졌으며, 목밴드는 14세기에 나타났고, 다음 세기에는 색깔있는 것으로 자수가 놓아진 목밴드와 손목밴드가 이용되었다. 1475년 Hugo van der Goes²⁵⁾의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s²⁶⁾에서는 14세기 중엽부터 단추가 사용된 예가 나타나지만 목트임은 보통 묶어서 조였다. 목트임은 앞쪽이었으나 드물게는 뒤에서 조여지기도 하였다. 또한 호즈(hose)를 연결하기 위해 셔트에 아일릿(eyelet)²⁷⁾ 구멍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그림 8)²⁸⁾.

15세기의 셔트는 앞부분이 길옷의 가장자리 위로 보여지기에 충분한 정도로 똑바로 선 높은 칼라(collar)가 이용된 시기인 1430~1450년경을 제외하고는 깊이 파인 목을 가졌다(그림 9). 중세의 셔트 재료는 울, 린넨²⁹⁾, 대마 외에 부유층에서는 실크도 이용되었다. 또한 15세기의 나사(羅紗)셔트는 린넨 셔트와 더불어 사이에 착용되었다. 중세말엽에 의복이 더욱 밀착되자 셔트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³⁰⁾. 14세기에 뿌르쁘헝 속에 착용했던 린넨 셔트는 15세기 이후 더불어 입을게 되면서 더불어 속에 셔트를 입는 것이 유행

25) 15세기 후반의 위대한 Flanders 화가(1440-1482).
26) Portinari Altarpiece의 중심 panel, c 1474-76, in the Uffizi Gallery Forence.
27) 끈, 고리, 줄 등을 꿰는 작은구멍.
28) Ruby, Jennifer, 앞의 책, p. 8.
29) 폴란드에서 저마(linen)로 만든 폴란드셔츠는 Edward IV의 wardrobe로서 언급.
30) Internet, <http://www.eb.com:180/>, Britannica.



<그림 9> Shirt with braies, 15th 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4.)

하였다³¹⁾. 농부는 유일한 의상인 슈미즈와 브레
중에서 하나만이나 혹은 두 종류를 모두 착용하
였고³²⁾, 슈미즈의 앞 개구부에 속옷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정숙성이 없었던 것 같다(그림 11).

2.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에 대해서 색슨(Saxon)의 명칭으로
는 브레 혹은 브리취즈(breches, breeches)였으
며 이것은 중세를 통해 성격(性的) 부위를 감추
는 남성옷을 나타내는 동의어로서 사용되었고 느
슨하고 헐렁한 쇼츠(shorts)를 언더-호즈(under-
hose)나 브레로 불렀다³³⁾. 브리취즈가 셔트보다
더욱 필수적인 속옷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상징
으로서 성직자는 브리취즈없이 지내야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또한 브레첸(bre-
che)라는 용어의 의복 외에 신체부위를 나타내
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브리취즈란 명칭이 겉
옷에 적용된 후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중세

옷에 대해서는 브레라는 용어만 사용하게 되었다
³⁴⁾.

흔히 밝은 색상으로 된 색슨 브레는 겉옷의 영
향을 받았고 대개 노르만 튜닉에 의해 거의 가
라워졌던 12세기 중엽에 실제 속옷화 되었다. 그 당
시 농부는 색상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흰 린넨이
나 우중충한 갈색 방모천으로 된 드로워즈를 이
용하였다. 12세기에 여전히 겉옷이었던 브리취즈
는 좁은 간격 때문에 뒤로 슬릿을 내어 넓고 헐렁
한 다리 부분을 이루며 종아리 중간길이였다. 또
다른 형태로써 농민은 발목주위로 드리워지는 팔
탈문과 유사한 것을 착용하였다. 이 두 형태는 끈
이나 거들로서 허리주위를 묶고, 몸에 밀착되어
서 앞트임이 요구되었다. 12세기 후반에 속옷으
로 명확해진 브레는 엉덩이부분이 매우 풍성하고
앞트임이 사라졌다. 브레 다리는 짧아졌으나 스타
킹은 길고 위로 폭이 넓어 다리를 완전히 덮고
브레 거들 앞에 코드(cords)로 부착하였다. 이
코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허리의 가장자리에서
피엄피엄 나타나는 러닝스트링(running string)
(그림 14)³⁵⁾이었으며, 때때로 지갑이나 열쇠를
안전하게 감추도록 거들³⁶⁾에 매달았던 관습은 다
음 세기에도 계속되었다.

13세기중 브레는 발목, 장만지 중간 혹은 무릎
길이에 점차로 짧아지는 경향이었고, 일반적 패
턴은 넓은 다리, 풍성한 엉덩이를 가지며 허리밴
드가 없는 상단부는 거들 즉 브레이어(braier, 佛)
에 꿰매진 것을 통해서 깊은 관형으로 된 가장자
리, 즉 쿠리세(coulisse)³⁷⁾속으로 뒤집어졌다. 이
것은 엉덩이 위로 당겨지고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아 부풀은 외관을 나타내며 'in and out' 꿰매
임이 사용되었다(그림 11). 거들의 양쪽에 부착
된 6인치 길이인 2개의 끈(strap이나 cord)은 작
은구멍을 통해 쿠리세로 부터 빠져 나왔으며 그
기능은 긴 브레의 다리부분을 치켜올리어 다리아
래부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브레

31)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 134.

32)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990, p. 14.

33) Nunn, Joan, 위의 책, p. 14.

34)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위의 책, p. 26.

35) 당기면 죄어지는 끈.

36) 띠, 허리띠, 띠모양의 것을 두르는 것.

37) 끈을 넣도록 만든 옷단(천의 가장자리).

의 다리가 똑바로 뒤집어져서 코드에 직접 부착 되거나(그림 10), 혹은 코드 위로 묶기 전에 바깥 쪽으로 반쯤 꼬여지기도 하는(그림 11) 2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뒤에서 브레 다리가 트일 경우 후자의 방법에 의해 간격이 효율적으로 줄었다. 이런 브레는 하복부를 격리하는 폐쇄구조의 의복이었다³⁸⁾.

13세기 중엽에 성가신 긴 브레는 무릎길이가 되며 가는 끈으로 무릎에서 매어졌다(그림 12, 13, 14). 다른 브레는 느슨하게 매달려지고(그림 16, 17) 다리의 아래쪽 경계는 불균일하게 잘리



<그림 10> Braies turned up straight and hitched to Braie girdle, c. 125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30.)



<그림 11> Countryman in braies. 13C. (The Development of Costume,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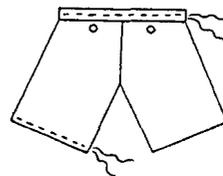
면서(그림 15, 16)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거나 후자가 보편적이었다. 이 시기의 브레는 허리에 미치



<그림 12> Braies tied at the knee.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9)



<그림 13> Braies caught at the knee with running string in girdle, c.125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6.)



<그림 14> Cut of braies, c. 1230. (Medieval Costume in England and France, p. 51.)

38) 深井晃子 譯, セシル・サンロラン, 앞의 책, p. 44.

지 않았으나 허리높이 바로 위의 거들로써 잡아 당겨졌다.

14세기에 브레는 더욱 짧아져서 셔트를 더 이상 집어 넣을 수 없게 되어 바깥에서 허벅지 위로 드리워졌다. 1340년 후에 현대 타이트를 닮은 걸 옷은 성적매력의 형태로써 남성다리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길고 타이트한 호즈 아래의 브레는 허벅지 중간에도 못 미쳤고, 이전에 브레의 거들에 부착된 호즈(그림 18)는 이 시기에 포인트(points)³⁹⁾로써 묶어 지붕에 매여졌다(그림 18)^{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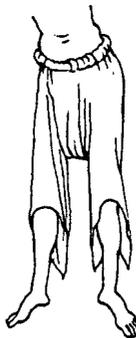


<그림 17> Loose Braies, Early 14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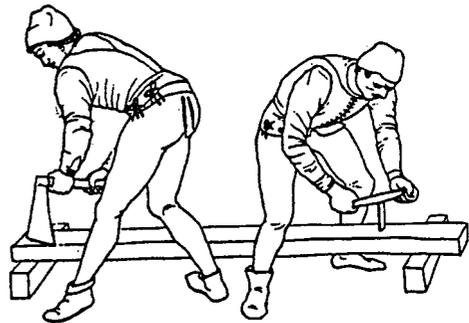


<그림 15> Braies.
(デザイナのための西洋服装史, p. 71.)

브레가 더욱 짧고 타이트해짐에 따라 착용하기 쉽도록 다리의 가장자리에서 앞이나 옆으로 슬릿이 있었다. 14세기 말엽에, 뒤집혀진 가장자리나 거들을 포함한 꾸리세는 더욱 좁아지고, 거들은 브라게트(brayette)⁴²⁾로서 알려졌으며 앞에서 버클로 채워졌다. 1340년경 부터 종전에 이곳에서 매달았던 호즈, 지갑, 열쇠의 부착 기능이 사



<그림 16> Braies with upward curve in front, 13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7.)



<그림 18> Gipon showing Attachment of points which held up Hose, 14C.
(Medieval Costume in England and France, p. 181.)

39) 손으로 뜯은 레이스나 리본, 끈으로 의복의 여러 부분을 잇는데 쓰임.
40)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p. 30.
41)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 195.

라졌다.

15세기 전기에 브레는 로인-크로스와 같을 정도로 위, 아래로 매우 짧아지며(그림 20) 버클된 거들대신 좁은 러닝스레드(running thread)⁴²⁾인 꾸리세로써 대치되었다. 6인치 간격인 2개의 구멍을 통해서 두 끝이 앞에서 부상하였으나 이 구멍사이의 공간에서 나란히 통과하는 스래드는 코드의 오른쪽 끝이 왼쪽의 작은구멍으로 나오도록 서로 교차되어 코드의 왼쪽 끝은 오른쪽의 작은 구멍으로 나온 뒤 밖에서 나비매듭(bow)으로 묶어 주머니처럼 부풀어졌다(그림 19).

중세 말기의 브레는 로인크로스(그림 21, 22)와 마찬가지로 되며, 근대 수영복의 트렁크와 비슷하였다(그림 23). 이 시기에 농부와 노동자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선조의 긴 브레를 계속 착용하였으나, 상류층의 브레는 길 모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페티코트(Petticoat)

1450년경부터 남성들에 의해 착용된 페티코트는 언더듀블렛(underdoublet)형태로써 나중에 웨이스트-코트로 알려졌다. 페티코트나 그것의 후속물을 속옷으로 부르는데에는 약간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17세기 동안 웨이스트코트



<그림 19> Pouched Braies tied with a bow, First half of the 15C.
(*History of Underclothes*, p. 29.)



<그림 20> Underwear, 15C.
(*The Development of Costume*, p. 53.)



<그림 21> Short Braies, Late 15C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29.)

가 겉옷으로 부상하기도 하였지만, 페티코트는 겉옷에 의해 완전히 감추어졌고 보온을 위해서 착용되었으므로 속옷의 기능을 나타내었다. 15세기에 페티코트 재료로는 거의 린넨을 이용하였으며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패드(pad)를 덧대었다⁴³⁾. 즉 방모 혹은 면부스러기로 채워진 린넨직물의 페티코트였다.

14, 15세기에 언더듀넉은 여러명칭으로 알려졌는데 1327년경에 그것은 지뽕(gipon, jupon)으로서 언급되었다. 이 지뽕은 원래 십자군 병사가

42) bragutte라고도 함. 바지 앞쪽의 틈 데, 주머니모양의 앞 트임 덮개.

43) 당기면 죄어지는 끈, 실.



<그림 22> Briefs, 15C.
(Unmentionables, p. 113.)



<그림 23> Bather's under shorts, 15C.
(Unmentionables, p. 115.)

착용했던 조끼 형태의 옷으로 코르사쥬의 허리를 자른 것처럼 짧고 겨드랑이 밑을 트고 끈으로 몸에 꼭 맞게 조였다. 모나 가죽으로 패드를 넣어 추위나 적군의 무기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에드워드(Edward) 3세 통치 말엽경에 이것은 팔톡(paltock)으로 알려졌으며⁴⁴⁾, 1327년경에 이것은 단지 언더튜닉이었으며 코다르디와 형태가 아주 비슷하여 앞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단추나 끈으로 조여지고 코다르디와 같은 길이이며 깊이 파이고 등근 목을 가졌다. 꼬다르디처럼 더욱 짧아져서 리차드(Richard) 2세 통치기에 겨우 엉덩이에 닿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언더튜닉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가슴에다 패드를 대었고 꼬다르디처럼 높은 칼라를 가졌다. 14세기에 속옷으로 셔츠와 브래를 계속 유지했으나 지팡과 같은 스타일은 천천히 변하였다⁴⁵⁾. 15세기의 팔톡은 14세기의 것과 유사하며 1415년경부터, 걸튜닉의 목선이 깊이 파여졌을 때 팔톡의 높은 칼라는 2,3인치 길이로 위쪽으로 보여졌다. 팔톡은 허리길이가 되며 여전히 끈으로써 호즈를 부착하였다. 이 세기 초기에 소매는 첫 손마디에 닿았으나 1420년 후에 손목길이가 되었다⁴⁷⁾.

V. 결 론

중세의 속옷은 죄의식과 관련되거나 겸손함을 상징하며, 처벌의 경우에 속옷 착용이 강요되었다. 겉옷과 더불어 변화되어가는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속옷의 개념이 중세 정신 속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속옷은 기술과 질적인 면에서 다양했으나 눈에 띄지 않아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실용적이긴 하나 역시 속옷은 성가시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 당시에 속옷은 겉옷의 거친 표면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과 신진대사에 따른 분비물로부터 겉옷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졌다. 14세기 중엽에 나타난 계층구별과 성적매력은 겉옷에는 적용되었으나 속옷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셔츠는 14세기 중엽 이후 더 짧아졌고, 목이 아래로 증가되며 양옆은 막혀거나 트였고 소매는 커프스 없이 다소 풍성하였다. 상류층의 셔츠는

44)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 24.

45) Yarwood, Doreen, 앞의 책, p. 72.

46) Yarwood, Doreen, 위의 책, p. 76.

47) Yarwood, Doreen, 위의 책, p. 86.

목과 손목에 자수가 되어지며 14세기에 목밴드가 나타났다. 목트임은 앞쪽에서 묶고 15세기의 서트는 높은 칼라가 이용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깊이 파인 목으로 울, 린넨, 대마 외에 실크도 이용되었다.

드로워즈에 대한 색슨의 명칭은 브레 혹은 브리취즈였으나 브리취즈란 명칭이 겉옷에 적용된 후에는 브레라는 용어만 속옷에 사용하였다. 빈곤의 상징으로서 성직자는 브리취즈 없이 지내야만 하였다. 밝은 색상으로 된 색슨 브레는 겉옷의 영향을 받았으며 브레는 12세기 중엽에 뉴닉에 가리워져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브리취즈는 뒤에 슬릿을 낸 종아리 중간길이의 넓고 헐렁한 다리를 가졌고, 농민은 린넨이나 방모천으로 된 발목에서 덮여지는 판달룬과 유사한 것을 이용하였다. 두 형태는 끈이나 거들로서 허리를 묶고, 신체에 밀착되어 앞트임이 있었다. 12세기 후반에 완전한 속옷이 된 브레는 엉덩이가 매우 풍성하며 앞트임이 사라졌고, 브레 다리는 짧으나 스타킹은 길고 위로 폭이 넓어 다리를 완전히 덮고 브레 거들 앞에서 러닝스트링인 코드로 부착시켰다.

13세기중 점차로 짧아진 브레는 넓은 다리, 풍성한 엉덩이를 가지며 허리밴드 없이 상단부는 거들에 매어져 깊은 관형의 가장자리(꾸리세)속으로 뒤집어졌다. 브레의 다리는 똑바로 뒤집어져서 코드에 직접 부착되거나 바깥쪽으로 반쯤 꼬여서 코드 위로 묶었다. 13세기 중엽에 무릎길이로 된 브레는 무릎에서 가는 끈으로 매고 다리의 아래쪽 경계는 불균일하였다. 14세기에 브레는 더욱 짧아져서 허벅지 중간까지 못 미치며 이전에 거들에 부착된 호즈는 이제 끈으로써 지붕에 매여졌고 브레는 더 짧고, 타이트해져 다리의 가장자리에 슬릿이 있었다. 14세기 말엽에, 뒤집혀진 가장자리나 거들을 포함한 꾸리세는 더욱 좁아졌다. 1340년경 부터 호즈, 지갑, 열쇠의 부착기능이 사라지며 15세기 전반기에 브레는 버클된 거들 대신 좁은 러닝스래드인 꾸리세로써 대체되었다. 중세 말기에 브레는 로인크로스처럼 짧게 되며 근대 수영복의 트렁크와 비슷하였다. 이 시기에 농부와 노동자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선조의 긴 브레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상류층은

길 모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1450년경부터 착용된 패티코트는 후기에 웨이스트코트로 알려진 언더듀블렛형으로써, 이것은 겉옷에 의해 완전히 감추어졌고,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착용되어져 속옷의 기능을 나타내었고 보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페드를 덧대었다.

참고문헌

1.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p. 98-151.
2. 深井晃子 譯, セシル・サンロラン, 女の下着の歴史, 文化出版局, 1981, pp. 43-63.
3. 日本ボテイフア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p. 112-113.
4. 原田二郎, デザイナーのための 西洋服装史, 原流社, 1976, pp. 60-87.
5. 정홍숙, 서양복식문화, 교문사, 1997, pp. 102-157.
6.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p. 23-32.
7. 青木英夫, 西洋男子服 流行史, 源流社, 1994, pp. 41-63.
8. 村上憲司, 西洋服装史, 創元社, 1986, pp. 54-96.
9. Benson, Elaine, John, Este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pp. 112-115.
10.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p. 19-26. p. 262.
11.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p. 21-31.
12. E. Linton George, *The Modern Textile and Apparel Dictionary*, Textile book Service, 1973, p. 98, p. 510.
13. Ewing, Elizabeth, *Dress and Undress, Drama Book*, 1981, pp. 16-24.
14.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p. 145-216.

15. G. Houston Mary, *Medieval Costume in England and France*, Dover, 1996, pp. 50-181.
16. Harvey John, *Men in Black*,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pp. 48-49.
17. Laver, James,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1986, pp. 46-72.
18. Laver, James, *Costume*, Hawthorn, 1963, pp. 21-39.
19.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990, pp. 9-28.
20.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p. 119-197.
21.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p. 8-11.
22. Tarrant, Naomi, *The Development of Costume*, 1996, pp. 16-53.
23. Yarwood, Doreen,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p. 55-86.
24.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5권 4호, 1997, pp. 12-31.
25. Internet, <http://www.eb.com:180/>, Britannica.
26.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논문, 1985, pp. 13-15.
27.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85, pp. 23-24.
28.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86, pp. 4-6.